

2000안타 최형우, 이승엽 KBO 최다타점 넘본다



“**형** 만한
아우 있다”

20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LG와 KIA의 경기. 1회초 2사 2루에서 KIA 최형우가 투런 홈런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워밍업을 끝낸 최형우가 2000안타를 넘어 최다 타점을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 기다렸던 KIA 타이거즈의 '해결사'가 돌아왔다. 최형우는 지난 20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시즌 1차전에서 멀티포를 날리며 많은 기록을 만들었다. 지난 4월 6일 키움전 이후 멈춰있던 KIA의 팀 홈런이 더해졌고, 홈런 두 방으로 상대 선발 정찬현을 흔들면서 6-3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이 승리로 6이닝 1실점의 호투를 선보인 브룩스는 4번째 등판만에 승리투수가 됐다. 이는 개막 후 14경기 만에

홈런 두 방으로 2000안타 채우고 KIA 14경기만에 선발승 이끌어 1346타점 기록, 이승엽 1498타점 까지 152타점 남아 '시간 문제'

기록된 KIA의 시즌 첫 선발승이었다. 팀의 구세주가 된 이날 최형우는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기록을 만들었다. 이날 경기 전까지 1998개의 안타를 기록했던 최형우는 홈런 2개로 2000안타에 부족했던 안타 2개를 더했다. 홈런으로 KBO리그 통산 12번째 2000안타를 이룬 최형우는 두 번째 홈런을 날린 뒤 윌리엄스 감독으로부터 '2000안타'를 축하하는 꽃다발을 받기도 했다.

2002년 삼성에서 프로에 데뷔한 최형우는 10월 18일 롯데를 상대로 프로 첫 안타를 기록했다. 최형우는 10월 19일 KIA와의 경기에서 데뷔 두 번째 안타를 기록했다. 하지만 통산 세 번째 안타를 작성하기까지는 무려 6년이 걸렸다. 삼성에서 방출이품을 겪었던 최형우는 우여곡절 끝에 2008년 다시 삼성 유니폼을 입고, 4월 1일 LG와의 경기에서 복귀 후 첫 안타를 만들었다. 같은 해 106개의 안타를 만든 최형우는 2021년 4월

20일 LG전까지 1772경기 만에 2000안타를 채웠다. 이병규 현 LG 타격 코치(1653경기)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최소 경기 2000안타 기록이다. 홈런·선발승 고민에 빠진 팀을 구한 영양가 만점의 안타였기에 더 의미가 있는 기록이 됐다. 최형우는 초반 타격 부진에 고전했지만 서서히 페이스를 올리며 '해결사'의 귀환을 알렸다. 2000안타 고지를 넘은 그는 이제 자신의 야구 인생 마지막 목표로 '최다 타점'을 위한 도전을 이어가게 된다. FA재계약을 통해 고향팀에서 3년을 더 달리게 된 최형우는 올 시즌을 앞두고 "KIA에서 우승하고 나서는 개인적인 목표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달려오다 보니 최다타점이 눈에 보인다.

이건 목표로 삼고 다시 해보고 싶다"고 '최다 타점'을 이야기했다. KBO 최다 타점 기록은 이승엽의 1498타점이다. 최형우가 20일 경기까지 1346타점을 기록한 만큼 올 시즌 남은 경기에서 152타점을 채우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최형우의 한 시즌 최다 타점 기록은 2016년 기록한 144타점이다. 하지만 2위 양준혁(1389타점)과 3위 김태균(1358타점)의 기록은 눈앞에 있다. 영점 조율을 끝낸 만큼 김태균과 자리를 바꾸는 건 시간 문제다. 침묵을 깬 최형우의 KBO리그 타점 기록 도전에 사람들의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악몽의 4회' ... 이 장면, 낯설다

홈런·3루타·2루타 내주고 패전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은 자신의 장점 중 하나인 '장타 억제력'을 보스턴 레드삭스전에서 보여주지 못했다. '악몽의 4회'에는 홈런, 3루타, 2루타를 모두 내주며 무너졌다. 2013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류현진이 한 이닝에 홈런, 3루타, 2루타 등 장타를 모두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류현진은 21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펜웨이 파크에서 열린 보스턴과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8안타를 내주고 4실점했다. 안타 8개 중 5개가 장타였다. 류현진은 이날 홈런 1개와 2루타 3개, 3루타 1개를 허용했다. 류현진이 한 경기에 장타 5개 이상을 내준 건, 2019년 8월 24일 뉴욕 양키스전(4.1이닝 9피안타 7실점, 홈런 3개·2루타 3개 허용) 이후 처음이다. 류현진은 2019년 6월 29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장타 6개(홈런 3개·2루타 3개)를 허용한 적이 있다. 빅리그 개인 한 경기 최다 장타 허용이 6개다. 2020년 토론토에 입단한 뒤, 류현진은 이날 전까지 늘 장타를 4개 이하로 억제했다. 올 시즌 앞서 등판한 3경기에서는 장타 3개 이상을 허용한 경기도 없었다. 하지만 21일에 만난 보스턴 타선을 상대로는 장타를 5개나 내줬다. 2회 첫 타자 산더 보하르츠에게 좌익수 쪽 2루타를 허용할 때까지만 해도, 우려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4회 무사 1, 2루에서 보하르츠에게 시속 147km 직구를 던지다가, 펜웨이파크 왼쪽 외야에 자리한 '그린 몬스터'를 넘어가는 3점포를 허용하



"이럴수가..." 류현진이 21일(한국 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펜웨이 파크에서 열린 보스턴과 경기에서 산더 보하르츠에게 3점 홈런을 내준 뒤 허탈해하고 있다. /연합뉴스

며 불안감이 커졌다. 류현진은 마르윈 곤살레스에게 좌월 2루타, 보비 달베크에게 중월 3루타를 맞으며 연거푸 실점했다. 달갑지 않은 개인 기록도 세웠다. 류현진은 2013년 7월 11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홈런, 3루타, 2루타를 한 개씩 허용했다. 2016년 7월 8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는 홈런 1개, 3루타 1개, 2루타 3개를 허용했다. 이후에는 한 경기에 홈런, 3루타, 2루타를 허용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4월 21일, 류현진은 홈런 1개, 3루타 1

개, 2루타 3개를 허용했다. 2016년 7월 이후 5년 만에 나온 달갑지 않은 장면이었다. 여기에 개인 처음으로 한 이닝(4회)에 홈런, 3루타, 2루타를 모두 허용하는 이례적인 장면도 연출했다. 장타 허용은 패배로 이어졌다. 토론토는 보스턴에 2-4로 패했고, 류현진은 시즌 2패(1승)째를 당했다.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은 1.89에서 3.00으로 올라갔고, 피장타율은 0.338에서 0.426으로 치솟았다. /연합뉴스

KIA, 25일 삼성과 홈경기 '레이디스 데이'

블랙·핑크색 유니폼 입고 경기 타이거즈숍 여성팬에 할인 혜택

KIA 타이거즈가 25일 삼성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서 '레이디스 데이'를 연다. KIA는 '레이디스 데이'를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 선수들은 이날 새로 디자인된 블랙·핑크색의 '레이디스 데이'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오른다. 유니폼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내 타이거즈숍과 온라인몰에서 판매된다. 여성팬들은 이날 하룻동안 타이거즈숍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는다. KIA는 또 3, 4번 출입구에서 입장 관객 중 여성팬(선착순 150명)에게 파우치, 손거울, 응원 선글

라스를 선물할 예정이다. 챔피언스 필드 중앙출입구 앞에 꽃으로 장식된 포토월을 설치해, SNS를 통해 가장 독특한 포즈를 올린 팬을 선발하는 '레이디 가가포즈왕' 이벤트도 연다. 이날 시구는 '천재 야구 소녀'로 불리는 박민서(17) 양이 담당한다. 한편 KIA는 24일에는 김용우 전 감독을 초청해 '타이거즈 레전드데이'를 연다. 타이거즈의 9차례 우승을 지휘한 김용우 전 감독이 이날 시구자로 나서고, KIA 선수단은 '검할 유니폼'으로 불리는 올드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연다. KIA는 이날 입장 관중에게 올드 유니폼 배지를 나눠준다. 챔피언스 필드 로비에 1997년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전시해 포토존도 운영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세영 "세계랭킹 1위는 가장 중요한 목표"

LPGA, LA오픈 우승 도전 "올림픽 출전 꿈 이루겠다"

고진영(26), 박인비(33)에 이어 세계랭킹 3위를 달리는 김세영(28)이 다시 한번 '세계랭킹 1위'에 대한 의욕을 밝혔다. 김세영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휴젤·에어 프레미아 LA오픈을 하루 앞둔 21일(한국 시간) 공식 기자회견에서 "세계랭킹 1위는 현재 가장 중요한 내 목표"라고 못 박았다.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다"는 김세영은 "올해 안에 세계 1위라는 목표를 이루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세영은 "솔직히 세계랭킹을 쟁거보지는 않는다. 2, 3주에 한 번 정도 보거나 누가 알려

주면 알게 되는 정도"라면서 "지금 당면한 과제에 집중한다"고 덧붙였다. 김세영은 올림픽 출전의 꿈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가를 대표해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큰 영광"이라는 김세영은 "두 번째 올림픽 출전은 내가 이뤄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세영은 2016년 리우 올림픽에 한국 대표로 나갔던 김세영은 올해 도쿄 올림픽 출전도 유력하다. 2019년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김세영은 "(대회가 열리는 월서 컨트리클럽) 코스가 재미있고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선수들이 플레이하기에 좋다. 또 한인타운이 가깝기 때문에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기도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장소"라면서 "전략을 잘 세워서 점수를 줄여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